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五名过岩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15호 【루계 제24728호】 주체103(2014) 년 11월 1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에하는 김정은동기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통지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하시고 온 나라를 수림 화, 원림화하는데서 나 서는 강령적인 과업들 을 제시하시였다.

최룡해동지,최태복동 지,오수용동지,한광상 동지, 리재일동지가 동 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현지에서 국토환경 보호상 김경준동지와 중앙양묘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 앙양묘장구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신 다 음 연혁소개실을 돌아 보시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에 오시였던 2011년 시였다.

양묘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다고,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없이,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 의 요구에 맞게 산림과학원을 현대 구상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일뗘섰 못한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절절히 히 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의 령도 였다. 다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말씀하시였다. 에 이곳을 찾으시여 중앙양묘장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생 강조하시였다.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 10월의 그날을 감회깊이 회교하 지도의 길에서 벌거벗은 산들을 중앙양묘장과 해당 부문의 일군 일군들,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신것을 너무도 안타까와하시던 들,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아글라 산림조성사업의 성과는 과학기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뗘오른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글 노력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둔 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새 세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푸른 숲 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묘목 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레일 조국의 래일을 보는것만 같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실, 묘목포전, 나무모영양단지와 여 산림 및 원림조성에 필요한 묘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신 후 온 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나무 부직포,해가림발생산기지들을 목들을 해마다 많이 생산하였다고 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하는데서 영상이 안겨온다고, 우리 장군님은 모생산기지를 유산으로 남겨놓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평가하시였다.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심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 유훈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계절에 관계없이 식수를 보장할 시였다.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하시였다. 놓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께서 모두

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공업 풀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수 있도록 나무심기방법을 완성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지 께서 는 할데 대한 과업, 나무모생산에 리

용 되 는 해 가 림 발 생 산 공정을 꾸릴데 대한 과업, 축산과 나무모생 산의 고리형순환생산 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돼지목장을 일떠세울 데 대한 과업,종업원 들의 살림집을 더 건 설할데 대한 과업 등 을 관철하였다고 기뻐 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양묘장에서 묘목생 산기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 하며 우리 나라의 특성 에 맞는 나무심기 및 관리방법을 완성할뿐아 니라 용재림조성에 필요 한 나무모는 물론 관상 적가치가 있는 나무모들 을 키워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들 여온 수종이 좋은 나무 것을 비롯하여 선진과 학기술을 적극 받아들

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

2 면 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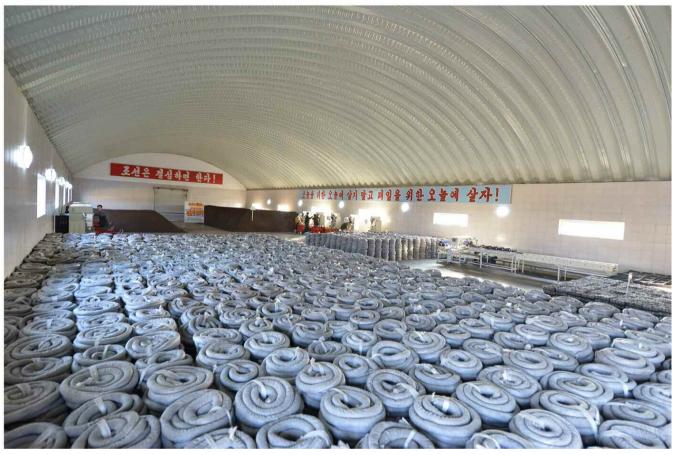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서 산림황폐화수준이 대단히 심각 항구적으로 틀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게 계획적으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 로 밀고나가야 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인 산림 한다고 말씀하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제대로 시였다. 진행하지 못하여 《산림애호》, 《청년림》,《소년단림》이라고 써 사회주의애국 붙인 산들가운데도 나무가 거의 림,모범산림군 없는 산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 칭호쟁취운동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벌 ^을 힘있게 벌려 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야 한다고 지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 하시였다. 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경 애 하 는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 김정은동지께서 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는 우리앞에 나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 선 숭고한 의무 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이고 조국의 미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성파를 거두 만 년 대 계 를 자면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할 위한 최대의 뿐만아니라 산림보호이자 토지보 애국사업인 산 호, 생태 환경보호, 경제 보호사업 림조성과 보호 이라는 판점밑에 숲을 보호하고 사업은 전군중 감독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 적 운 동 으 로 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 진 행 하 여 야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난 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신 였다. 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의 산림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견결히 옹호 표명하시였다. 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면 새기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체 군대와 인민들이 열렬한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내

어쥐고 전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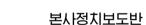
전사회적으로 같은 대중운동

래,백년대계, 🛬 한다고 하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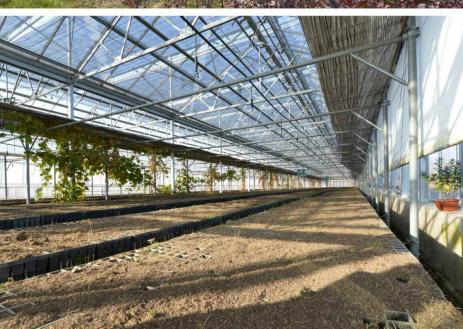
업인것만큼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 을 푸르게 하자고 다시금 강조하시 사업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섬으로 로,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

산림조성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국산천 조국애를 지니고 산림조성과 보호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

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게 꾸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어버이장군님의 고귀한 발자취가 어린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자

가 을 철 국 토 관 리 총 동 원 사 업 떨쳐 나 선 원 들 당

돌파구를 연 혁신적인 제방공사의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어버이장군님의 고귀한 발자취가 어린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 을 받들고 최근 수안군에서 2 000여m의 례성강바닥을 8 0 cm~1 m 파내여 제방을 형성함으로써 이 일대의 면모를 변모시킬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불피해를 막고 강하천 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군에서 례성강바닥흙을 파내 여 제방을 쌓는 문제를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중요과 제의 하나로 제기한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앞둔 어느날 군책임일군을 비롯 한 일군들은 례성강기슭으로 향 하였다. 방대한 레성강 2단계 제방공사문제를 현지에서 토의 하기 위해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강바닥을 파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성강 1단계 제방공사 를 하면서 바닥을 50cm정도밖

되겠는지 잘 타산해보자고 하 에 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였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강바닥을 80cm이상 파내여 제 방을 쌓는것을 중심과제로 제기 하자는것입니다.》 군책임일군이 자기의 결심을

말하자 일군들은 군의 력량으로

는 례성강바닥파기를 할수 없다 고 하면서 난처해하는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이 지역은 례성강상류이기때문 에 너비가 평균 수십m인데 장 마철에 비가 오랜 시간 내리면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초당 수 십m³이상 흘렀다. 이때 제방의 일부 구간이 물이 넘어나면서 파괴되여 평원리일대의 농경지 가 피해를 입군 하였다. 큰물피 해를 막자면 결정적으로 강바닥 을 80cm이상 깊이 파야 하였 다. 2 000여m의 강바닥흙을 파내여 제방을 쌓자면 토량만 해도 8만여m³나 되므로 군의 력량을 총집중한다고 해도 2개 월은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

였다. 이때 그들의 생각을 넘겨짚은 군책임일군이 굴착기들이 있는 단위와 련계를 가지였는데 그 단위의 방조를 받아 강바닥을 파내여 제방을 형성하면 어떻게

사 업 에 서

그 말을 들은 군국토환경보 호관리부 일군은 눈이 번쩍 트 이였다. 사실 군에는 굴착기가 없기때문에 례성강 1단계 제 방공사를 할 때 불도젤들을 동 원하였다. 그런데 불도젤은 토 지정리와 같이 흙을 밀어내는 데는 좋았지만 강바닥흙을 파 올리는데는 불리한 점들이 적 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방도를 모색 하던 군책임일군은 굴착기들이 있는 어느 한 단위를 찾아가 토 론해보기로 결심하였다. 군책임 일군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 단위 일군은 국토관리사업도 자기들의 일이라고 하면서 적극 도와나섰다.

군일군들은 강바닥흙을 파올 려 제방을 쌓는것을 가을철국토 관리총동원사업의 중요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그 단위 일군들 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2단 제방공사를 성과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특히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를 앞세 우면서 장석보장준비를 따라세 우게 하였다.

며칠후 레성강제방공사설계

가 완성되자 여러대의 굴착기들 이 현지에 도착하였다.

목표가 뚜렷하면 일욕심이 커 지기마련이다. 일군들은 먼저 강바닥흙을 파내여 제방을 평균 2~3m 높이 쌓는데 힘을 넣었 다. 수천명의 로력을 대신하는 굴착기들의 동음이 울리면서부 터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성과

어느날 제방공사장을 돌아보 던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 은 걸음을 멈추었다. 강바닥은 그전보다 평균 80cm~1m 깊 어졌지만 제방공사는 설친데가 있는것이였다. 얼핏 보기에는 제방공사를 완공할수 있게 된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설계대로 되지 못하였다. 제방밑너비가 설계보다 넓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좁은 구간도 있는것이였 다. 원인은 기술지도를 따라세

우지 못한데 있었다. 국토관리사업에서는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이렇 게 결심한 그는 굴착기운전공들 에게 우리가 기술지도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방을 다시 쌓자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굴 착기운전공들은 설계의 요구대 로 되지 못했으면 열백번이라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일손을 잡았다.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 고 힘은 군중에게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일군들은 2단계 제방공사의 돌파구가 열리는데 맞게 로력조직사업을 면밀히 짜 고들었다. 군안의 근로자들이 떨쳐나 기세를 올리였다.

뜨거운 조국애,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근로자 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제방을 쌓아나갔다. 그 나날에 군에서는 8만여m³

의 례성강바닥흙을 파내여 제방 을 형성하게 되였다. 한편 군일 군들은 여러곳을 다니며 돌원천 지들을 찾아내여 장석공사를 뒤 따라 내밀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레성강 2단계 제방공사

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할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였 다. 군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하 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 하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이 군의 현실은 국토관리사업 은 방대한것만큼 일군들이 돌파 구를 열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작전을 잘하여야 혁신적인 성과 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보장되기마련이라고 하였다. 이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부 터 시작된다. 아흔아홉굽 이의 추지령도로를 견고 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게 기술개건하여 그 면모를 변모시킨 통천군 일군들

그것을 보여준다. 여러가지 색갈의 함수 석으로 무늬장식을 한 옹벽, 새로 생겨난 안전 보호벽,흠잡을데 없는 도로옆도랑, 문화성있게 세운 도로표식물…

과 근로자들의 일본새가

어떻게 되여 도로의 면모가 일신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도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분명정도를 반영합니다. 》 군에서 가을철국토판

리총동원사업문제가 토의되던 날 추지령도로기 술개건계획을 본 군인민 위원회일군은 생각이 깊 었다.연 수천m구간의 옹벽공사는 구체적으로 반영되 지 않았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일부 일군들은 도로는 평탄성만

잘 보장되면 견고성과 문화성도

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일군들의 심장부터 불

타야 합니다. 향토에 대한 열렬 한 사랑으로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군책임일군의 손에 고심의 흔적이 슴배인 종이 두루마리가 쥐여져있었다. 자연 지리적특성에 어울리는 옹벽과 장식, 샘물터, 휴식터… 뜻밖에 추지령도로를 기술개건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보며 의아해하는 일 군들에게 책임일군은 추지령도로 는 굽이가 아흔아홉개나 되므로 옹벽공사를 하기 전에는 견고성 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없다, 옹 벽공사를 하는것으로 그치지 말 고 장식도 하고 샘물터와 휴식터 도 꾸려야 한다고 덧붙이였다.

이렇게 되여 추지령도로를 선 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개건 하기 위한 문제가 가을철국토판 리총동원기간에 해야 할 중요과 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그런 데 문제로 된것은 옹벽공사에 쓸 돌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 는것이였다.

한 일군이 지난 기간 도로폭 을 넓히면서 까낸 돌을 쓰자고 하자 모두가 합리적인 방도라고 하였다. 하지만 군국토환경보호 관리부 일군은 의견을 달리하였 다. 그 돌들은 망치로 두드리면 잘 깨지기때문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그는 도로의 견고성과 문

때 그들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 화성을 보장하자면 힘은 들어도 광교천의 돌을 날라다 옹벽공사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

군일군들은 추지령도로기술 개건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 었다. 다음날부터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분발해나섰다.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로 가 슦읔 끓이며 떨쳐나선 근로자들 은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 용하여 광교천의 돌을 실어들이 였다. 옹벽공사를 맡은 근로자 들은 한m²의 옹벽을 쌓아도 설 친데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 다. 이와 함께 감색, 푸른색 등 의 함수석으로 연 1 400여 m²의 옹벽에 장식을 하고 12 km의 도랑에 돌을 쌓은데 이어 미장까지 하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군급기관, 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샘 물터, 휴식터들을 문화성있게 꾸 러나갔다. 도로기술개건을 담당 한 근로자들도 높은 부분은 깎아 내고 돌을 까내면서 6만 8천㎡ 도로의 평탄성과 견고성이 잘 보 장되게 하고 7.6 km구간에 550개의 안전보호벽을 쌓았다.

결과 군에서는 굽이가 아흔아 홉개나 되는 추지령도로를 흠잡을 데 없이 기술개건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리 를 잘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본사기자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대흥군에 서 대동강상류에 2개 의 콩크리트다리를 건 설하여 늘어나는 수송 수요와 인민들의 교통 상편리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도로와 다리, 강 하천건설은 후손만대 번영을 위한것인 것만큼 먼 후날에 가 서도 손색이 없게 과 학기술적으로 잘하여 야 합니다.》 군에서 건설한 다리

들은 소백리와 평화리 들이 건설됨으로써 룡림군과 장진군방향 으로 오가는 륜전기재 들의 물동수송과 교통 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다.

군에서는 먼저 소백리의 나무 건설하여 륜전기재들의 보다 안 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작 전을 펼치였다. 해당 부문 기술 리였다. 자들과 함께 현지를 돌아본데

기초하여 설계를 앞세운 일군들 은 짧은 기간에 다리를 건설할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위한 사업에 어깨를 들이밀 었다.

특히 그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다리건설의 모든 공정에서 시공규정을 철저히 지 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이 다리건설에 떨쳐나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설계의 요구와 시 공규정을 알려주면서 기술지도 를 앞세워나갔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을 풀어나가는 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이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

신심드높이 분발해나선 근로 다리를 없애고 콩크리트다리를 저히 지키면서 그날계획은 그날

였다.

일군들이 수십t의 세멘트와 강재,혼석보장을 앞세우기

자들은 다리의 견고성을 보장하 하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 을 합쳐나갔다. 수송을 맡은 근 로자들은 여러가지 륜전기재들 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세멘트 와 철근, 혼석을 제때에 보장하 였다. 철근가공과 조립을 담당 한 근로자들도 기술적요구를 철 로 수행하였다. 다리상판치기에 떨쳐나선 근로자들도 기세를 올

그리하여 군에서는 짧은 기간

서 에 다리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

군에서는 이 성과에 기초하여 평화리의 나무다리를 없애고 콩 크리트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려 수십일동안에 완공하였다.

소백리와 평화리에 콩크리트 다리가 건설되여 이 일대의 면 모도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분조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 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조림분조 원들이 농장림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 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 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마음안고 인민의 분화휴식러인 공원을 잘 관리하고있다. -선교구역공원, 유원지관리소 선교공원에서-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단산협동농장 조림분조에서

심기준비를 잘 갖추는데 힘을 넣었다. 이미 세운 농장림조성 전망계획에 따라 농사와 농장 원생활향상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는 농장림을 조성하자면 무 엇보다도 좋은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기때문이였다.

승리의 신심드높

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모든 전선에서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나무생산을 결정적으

사업소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면서 통나무생산전투에로 대

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박

경훈, 김병철, 김철남, 림철만동

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한개 작

업소씩 맡고 산판에 올라 정치

사업도 하고 걸린 문제들도 풀

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앞세운 조건에서 중요한것은 나무심을 구뎅이준비를 잘해놓 는것이였다. 가을에 구뎅이를 미리 파놓으 면 봄에 땅이 녹으면서 구뎅이 에 물기가 많아지고 눈석임물도

흘러들어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 는데 좋았다. 문제는 그전보다 나무를 많이 심을것을 계획한것 만큼 거름생산도 그에 맞게 늘 여야 한다는데 있었다. 여러가지 사업을 내밀면서 거름생산을 늘인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였다. 그때 분 조장 박철호동무가 내놓은 안이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 시

기보다 앞당겨 구뎅이파기를 하 자는것이였다. 지난 시기에는 대체로 농장에서 가을걷이가 끝 난 후 농장원들을 동원하여 구 뎅이파기를 하였다.

하지만 그때는 가랑잎이 바람 에 날려가는 시기여서 그것을 거름으로 많이 리용할수 없었 다. 그러나 가랑잎이 한창 떨어 질 때 구뎅이를 파면 그것을 손쉽게 여기에 거두어넣을수 있 었다.

분조장이 그에 대해 설명하자 분조원들은 거름생산을 자연적 으로 늘일수 있는 이 방법을 적 극 지지하며 한사람같이 떨쳐나

근할 때 집에서 생산한 거름을 들고나와 분조거름더미에 쌓아 놓으면서 지난해보다 일찍 구뎅 이파기를 시작하였다. 잡판목뿌 리와 돌이 있는 땅을 일정한 길 이와 너비, 깊이로 파내는것은 한다하는 장정들도 땀을 뽑게 하는 작업이였다.

섰다. 이들은 우선 매일 아침 출

하지만 이들은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한마음으로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잣 나무, 밤나무 등을 더 많이 심기 위해 구뎅이파기를 힘있게 다그 쳐나갔다.애국의 구슬딲을 아 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눈 앞에 보다 훌륭히 꾸려질 농장 릮의 래일이 어려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색산이다 나무모저장이자

요덕군산림경영소에서 수백 장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

산림경영소일군은 나무모저 장이자 생산으로 된다고 하였 다. 창성이깔나무모를 키워내자 면 다른 나무모들과는 달리 많 은 품을 들여야 하기때문이다.

이깔나무모는 대체로 11월 중순에 저장한다. 이로부터 산 림경영소에서는 1 1 월초에 나 무모저장고를 잘 정리하고 5~ 6시간 소독하였다. 소독을 잘

하여야 나무모가 병들지 않기때 지난 기간 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를 저장할 때 그해 봄에 종자를 뿌려 키운것은 100여 대, 두해 키운것은 25~50대 씩 단을 묶었다. 나무모저장고 의 온도는 평균 0~5℃, 습도 는 70% 보장하였다. 그리고 7~1 0일에 한번씩 공기갈이를

나무모는 3년만에 옮겨심군 하였다. 이때 두해 키워 저장하 였던 나무모들만 3월에 옮겨심

었다. 이렇게 저장하였던 나무 한해 키운 창성이깔나무모는 다 시 양묘장에 내다가 평당 수십 대씩 심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시기 의 경험에 기초하여 저장고준비 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먼저 청 소를 깨끗이 하고 더 많은 나무 모를 저장할수 있게 덕대를 매 였다. 그리고 소독도 충분히 하 고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본사기자

과 감 히 최 첨 단 돌 파 전 에

청진스레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청진스레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사 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 가

당보에 실리였을 때였다. 지배인 림영준동무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선군조선의 이름으로 혜성처 럼 나타난 CNC-런하기계, 우 리 나라도 CNC공작기계공업에 서 앞선 나라들과 어깨를 당당 히 겨루고있으니 얼마나 긍지높 은 일인가.)

그날 저녁 그는 일군들과 마 주앉아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속 에 몰라보게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하여, 공장의 앞날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 대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은 경제 적진보의 기초입니다.》 당의 요구,시대의 요구를

심장에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 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결심밑에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모두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 게 벌려 기어이 당에서 바라는 대로 공장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울것을 결심하 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공장 으로는 어느 한 대학의 교원이 찾아왔다.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 리고있는 동무들을 돕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과학 기술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달려봅시다.》

그날부터 현장에서는 기술강 습이 진행되였다. 스레트를 비 롯한 건재류들과 부품제의 세계 적추세, 우리 식으로 개발된 프 로그람들에 대한 강습…

기술강습을 통해 일군들과 종 업원들의 수준이 한계단 높아졌 다. 세계적추세에 맞게 새로운 제품을 자체로 개발하려는 사람 들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졌다. 그즈음 지배인의 방에서는 진주 암에 의한 부품제연구를 놓고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부품진주암은 가벼운 콩크리 트의 골재, 랭동장치의 보온재, 미장용혼합제, 증기기관과 보이 라의 열차단제, 액체의 려파제, 비료와 살초제의 흡착제 등으로 쓰이고있다. 해볼만 한 연구대 상이였다.하지만 지금까지 알 려진 연유나 가스소성법에 의한 부품진주암생산공정은 매우 까 다로왔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

는 그런 연료자원이 없었다. 부품진주암을 도에 흔한 갈탄 으로 생산할수는 없겠는가.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토론을 심화시켜나갔 다.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 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공동개 발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 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배인의 결심은 확고

하였다.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련 하 기 계 개 발 자 들 처 럼 제힘을 믿고 첨단을 돌파해나갑 시다.》

모두가 그의 주장에 공감하였 다. 이렇게 되여 공장에서는 부 품진주암연구가 시작되였다. 새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은 높 은 지식과 강의한 의지를 요구 하였다.

생산설비제작도 간단치 않았 지만 1 200℃의 온도에서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진주암을 부풀게 할수 있는 정확한 과학 기술적지표를 찾는다는것은 더 욱 힘들었다. 시험은 거듭되였 다. 하지만 지배인과 공장기술 집단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 하지 않고 연구를 심화시켜나갔 다. 과학기술서적을 꾸준히 학 습하고 경험을 터득하였으며 우 리 식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 구해나갔다. 설계도 자체로 하 고 생산설비와 자재들도 집체적

지혜를 모아 해결하였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 법이다. 이들은 고심어린 연구끝에 갈 탄소성법에 의한 부품진주암생 산에서 성공할수 있었으며 연구 성과를 과학기술심의에 내놓을

크지 않은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는 사람들을 놀래웠다. 반 향은 컸다. 특허기술로 평가된 부품진주암생산방법도 놀라왔 지만 심의원들의 감탄을 자아낸 것은 그 개발자들이 다름아닌 평범한 일군, 기술자라는 사실

이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목표를 내세우고 최첨단돌파전 서로 얼싸안고 성공의 기쁨을 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나누었다.

비약의 불바람을 세 차게 일으킬데 대한 갈탄에 의한 부품진주암생산 방법에 대한 연구성과가 종업원 들에게 주는 영향은 컸다.모두 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신심드높이 첨단 돌파전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일 터에 더욱 세차게 타오른 기술 혁신의 불길속에 공장에서는 또 다시 진주암을 리용한 압착천정 판생산방법에 성공하여 특허권 을 받았다. 지배인을 비롯한 많 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학위소 유자, 특허권소유자가 되였다.

그 나날 공장이 받은 과학기 술증서만도 수십개에 달하였 다.생산품의 가지수가 대폭 늘어나고 제품의 질이 높아졌 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가운데는 2월2일제품으로 등 록된것도 있다. 지난날 공장구 내에 산더미처럼 쌓이군 하던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기물들도 좋은 재료를 만드는 원료로 리 용되고있다.

오늘 공장은 일 잘하는 공장 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낌없 는 찬사를 받고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들이 이룩한 성과는 누구나 최첨단돌파전은 바로 자기 초소 와 일터에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두뇌 전,기술전을 힘있게 벌릴 때 알찬 열매가 주렁지게 된다는것 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보다 높은 기술발전 특파기자 리은 남

벽 동 림 산 사 업 소 에 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벽동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사업소에서는 권창작업소의 로동자들이 올해 통나무사이나 2개의 산지합숙을 본보기가 되 르기와 마감나르기를 마감단계 게 꾸려놓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 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었다. 그리고 모든 작업소들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서 산지합숙을 잘 꾸리고 생활

> 적극 떠밀어주었다. 혁신의 불길은 성하,대풍, 권창작업소를 비롯한 모든 작업 소들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작 업소와 소대들호상간 통나무생 산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바

을 락천적으로 하면서 통나무생

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림산사업소의 가족들도 부강 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안고 후방물자를 준비해가

지고 산판에 올라가 로동자들의 통나무생산전투를 힘껏 도와나 섰다. 그리하여 사업소는 지난 4월 중순까지 년간 통나무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켰다.

기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통나무사이나르기와 마감나

사업소의 일군들은 생산한

통나무 사이나르기와 마감나르

르기에서는 권창작업소가 앞장 소장 방성철, 소대장 김윤식

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실

천적모범으로 로동자들을 위훈

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성하작업소와 대풍작업소의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

돕고 이끌며 사이 나르기와 마감나르 기에서 집단적혁신 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편벌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불타는 애국의 한마 음안고 현대적혁신의 불길을 세 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편벌작업 반의 종업원들은 나무터에서 실 어온 통나무들을 압록강에 띄운 다음 지체없이 뗴무이전투를 벌 리고있다. 그리고 선박작업반의 종업원들은 배수리정비를 짜고 들고 물길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한번에 수천m³의 통나무를 나르

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전투 장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 의 포성을 높이 울리면서 통나 무생산자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 장 진 림 산 사 업 소 에 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보 답 할 불라는 0 눈 부 신 학 기 술 성 과 로 과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경애하는

파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 군들이 새로운 신심과 용기에

넘쳐 산악같이 일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 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 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위 업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과학자들 과 일군들의 앙양된 열의가 과 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 빛나 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 중하고있다. 일군들은 과학자대 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에서 발 전되고 문명한 건축물들을 훌륭 히 건설하여 남먼저 우리 과학 자들에게 돌려주는것은 바로 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

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

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전력

나도 절로 기분이 유쾌해져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고 웃으

며 물었다. 그러자 소장 김광혁

동무가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침 잘 왔습니다. 우리 전력

설계연구집단 동무들이 풍력과

태양전지를 결합한 발전소운영

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시험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우리

과학자들은 이런 때가 제일 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설계연구집단 과학자들의 얼굴

마다에 웃음꽃이 피여있었다.

되여야 합니다.》

학원 전기연구소

를 찾았을 때의 일

이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전 국가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최 첨단돌파전에서 알찬 성과들을 이룩하여 전진하는 부강조국의 전초병이 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인식시켜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책임일군 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조직정치 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은정과학 지구의 분원, 연구소들뿐아니라 국가과학원아래 각지의 연구 기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로 들끓고있다.

건축공학분원과 자연에네르기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앞장에 섰다. 이곳 과학자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령에 네르기, 령탄소건축기술과 자연에 네르기의 개발리용을 위한 연구

에 보다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물려과기에 대한 연구제작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도시경영과학연구소와 동력기 계연구소에서는 서로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합쳐 휴대용물려과 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그 생산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 으며 규산염공학연구소에서는 보다 능력이 큰 물려과기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

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은 111호제작소와 전기연구소에서도 힘있게 벌어 지고있다. 1 1 1 호제작소의 과 학자들과 일군들은 평양국제비 행장 활주로포장에서 제기되는 평탄도개선을 위한 긴장한 연구 사업을 현지에서 벌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 는데 이바지하였다.

용접연구소와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실험설비공장에서도 제기되

는 대상에 맞게 연구력량을 기동 성있게 조직하고 책임일군들이 수 시로 현지에 나가 긴절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있다.

특히 용접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국가과학원 해당 부서 일군들과 의 긴밀한 련계밑에 평양지하철 도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 게 벌림으로써 수도시민들의 교 통문제해결에 적지 않게 이바지 하고있으며 현지일군들로부터 아 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흑색금속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 조를 강화하여 새로운 주체철생 산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고있다.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이바지 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투쟁도 보 다 적극적으로 벌어

> 지고있다. 석탄과학분원 순 천지구무연탄채굴 공학연구소와 석탄 채굴공학연구소 그 리고 3화수송연구 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들에서는 탄 광들에서 긴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문 제들을 제때에 원 만히 해결함으로써 석탄생산을 늘이는

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 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온천탐사에서 도 성과가 이룩되 고있다.

데 많은 기여를 하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온천탐사를 처음으로 진행하는데 맞게 문헌연 구를 심화시키고 현지를 수많이 답사하면서 시추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성과는 생물공학분원과 식물학

지구환경정보연구소와 지질학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서도 이룩되고있다.

생물공학분원에서는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에볼 라비루스감염증을 막는데서 제 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관심속에 새로 일떠선 기초과학 연구기지청사에 자리잡은 나노 재료연구소와 물리학연구소, 력 학연구소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열의도 매우 높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책 임일군들의 째인 조직사업밑에 나노재료연구소에서는 여러건의 무게있는 연구대상과제들이 이 미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 며 나라의 나노기술발전에서 의 의가 큰 연구사업들이 안속있게 벌어지고있다.

력학연구소에서는 기계진동 진단기술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 상들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력학 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우리 과학자들을 높은 문명의

세계에 남먼저 내세워주시며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 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과학기술 룡마의 날개를 더 활짝 펼친 국가 과학원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조국과 인민이 기대하고있다. 본사기자 려명 희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 앞쪽으로 키높이 서있는 이였다.

을 일터에 모시였던 행복

한 과학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우리가 이곳을 찾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연에네르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당

장은 덕을 보지 못하

여도 앞을 내다보고

멋들어지게 일떠선

연구소청사의 홀에 들어

서니 태양열설비보급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이 모셔진 사진문헌이

개발과 리용에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환하게 안겨왔다.

시기까지 자연에네르기의

기울이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젖어들었다.

우리와 만난 소장 리명선동무

는 연구소가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야 합니다.》

것은 얼마전이였다.

▶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경 애 하

3대의 풍력발전기날개들 《아직 1년도 안되였으니 그야 이 류달리 눈에 뜨인다. 말로 우리는 초학도들입니다. 》 그뒤로 틀지게 들어 초학도, 그 말이 왜서인지 아주 인상깊었다. 앉은 현대적인 새 건물 들이 바로 지난 10월 우리는 부소장 박사 김강일동

1 3 일 경 애 하 는 무의 안내를 받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하신 국가과학원 자연에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 ▶** 네르기연구소의 새 청사 과학연구성과전시장에는 **그**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자 연 에 네 르 기 연 구 소 를

실장 김유성동무를 비롯한 과학 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설계제작했다는 1 OkW풍력발 전기수지날개를 비롯하여 원추 형벼겨곤로 등 여러가지 제품들 과 함께 지난 기간의 연구성과 를 보여주는 도판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부소장은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이들은 초학도들 이라고, 이들이 자연에네르기개 발리용사업을 잘해나가도록 도 와줄데 대하여 일군들에게 당부 하시고 연구사업과 관련한 귀중 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고 감격 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는 우리를 어느 한 도판앞으로 이끌었다.

《자연에네르기과학발전의 꿈과 리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곳 과학자들이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세운 목표가 한눈에 안겨왔다.

《남들이 걸어온 길을 주름잡 아 비약하자는것이 우리 초학도 들의 꿈이고 리상입니다.》

초학도의 꿈과 리상! 자연에네르기개발사업을 보 다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실 원대 한 뜻을 안으시고 전문연구소도 내오도록 하시고 새 청사도 품들여 꾸려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앞으

은정과학지구에 들어 숭고한 뜻에 따라 새로 창립되 로의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 주시며 그렇듯 애지중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꿈 도 소중히, 리상도 높이, 첫걸음

찾 아 서

도 힘차게 내디딘 이들이였다. 그래서였다. 초학도라고 하던 소장의 그 말이 우리에게 그렇

듯 깊은 여운을 남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그 소중한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고있는 과학자들 의 모습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연구소의 곳곳에서 볼수 있었다.

연구집단이 하나가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연구결과를 짧은 기간에 내놓겠 다고 하던 풍력에네르기종합연 구집단의 실장 박사 림영남동무와 정인교동무, 생물질에네르기개발 리용에서 기어이 패권을 쥐겠다고 하던 실장 전승철동무와 최성철동 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수요가 늘어나고있는 지열랭난방체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높은 실적을 내겠다고 하던 실장 송철 수, 연구사 장명철동무들…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성과학자 주택지구에 일떠선 태양열온실 에서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 을 받아안은 태양열에네르기종 합연구집단 김준성동무 그리고 리성호동무의 열의도 만만치 않 았다.

현지로 달려나간 과학자들 또한 많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숭고한 지향을 안고 피 타게 사색하고 탐구하며 불같이 헌신하고있는 미더운 과학자 들, 이들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퍼난 미래의 우리 조국은 얼

마나 문명하고 부강할것인가. 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그날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중앙버섯연구소에서 -

쁘지요.》

제

탄부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터치는 소장의 말을 들으니 문득 취재 길에서 만났던 혁신자들의 모습 이 떠올랐다.

정보당 10t이상의 알곡을 생 산하였다고 기뻐하면서 과학농 사덕이라고 하던 농장원들이며 만선기날리며 포구로 돌아온 기

쁨속에 이번에 어선용위성수신

체계가 은을 크게 냈다고 떠들

썩하던 어로공들, 높이 쌓은 석

탄산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도입한 관성식

적재운반설비가 있어 오늘계획

도 넘쳐했다고 흥분하여 말하던

협동벌과 어장, 탄전 등 우리의

혁신자들이 있는 곳은 서로 달라

도 그들이 터치는 증산의 기쁨속

에는 하나같이 우리 과학자들의

고심어린 탐구의 열매들이 그 얼

마나 소중히 깃들어있는것인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장들마다에서 높이 울리는 증산의 동음도,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의 환호성도 비록 크 지는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연 구소라고 하여도 바로 거기에서 평범한 날에 울리는 성공의 환성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으로부터 시작되는것 아니랴. 그래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 리 과학자들이 거 둔 연구성과라면

아무리 소박하고 자그마한것이라도 그처럼 귀중하게, 그처럼 크게 보 시고 제일로 기뻐하시며 그들을 남먼저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 시는것이며 우리 인민은 제일처 여기며 과학자들에게 진심어

린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것이다. 그렇다. 자기들이 내놓은 한건 한건의 연구성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큰 기쁨이고 또 한 온 나라 인민의 제일 큰 기쁨 으로 되기에 우리 과학자들은 성 공의 순간에 그처럼 기뻐하고 그 순간을 위해 한생을 바치고 목숨 도 서슴없이 바치는것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령에네 르기, 령탄소건축기술을 받아 들이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습니다. » 얼마전 우리는 건축분야에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건축공학분 원의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 었다.

기자: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돌아 보시면서 지금 세계는 령에네르 기, 령탄소건축기술을 받아들이 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고 가르 쳐주시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고싶다.

연구사 김금송:령에네르기, 령 탄소건축은 최근시기에 와서 인 류의 공통적인 지향과 함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는 에네르기 문제, 환경문제로 하여 보다 필 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 고있다.

령에네르기건축기술은 건물 에서의 에네르기소비를 최소로 본사기자 하고 자체로 생산한 에네르기로

록색건축기술개발의

건축공학분원 과학자들과 나눈 이야기

사람들의 생활상편리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건축기술을 말한다. 에네르기적측면에서 록 색건축기술의 최고급단계라고 볼수 있다.

령탄소건축기술은 건물의 운 영기간에 그자체내에서 방출되 는 이산화탄소량이 령 또는 최 소로 되도록 하는 건축기술이 다. 여기에는 난방, 공기조화, 조명, 취사, 각종 전기용품에 리 용되는 에네르기와 관련한 기술 이 포함되여있다.

령탄소건축은 내용상에 있어 서 령에네르기건축과 류사하지 만 환경문제에 보다 중점을 둔 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록색건축은 에네르기를 비롯 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 호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편리 성, 실용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기술이 종합적으로 실현된 건축 을 말한다.

를 하여 금메달 3개를 쟁취하

어머니조국에 또다시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금메달로 선군조

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된것

으로 하여 김은국선수는 크나큰

수가 또다시 세계력기계를 뒤흔

들며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체조선의 억센 기상의 힘있는 |

따라 체육강국에로 비약하는 주

엄윤철선수에 이어 김은국선

감격과 기쁨에 넘쳐있었다.

결국 령에네르기건축, 령탄소 건축은 표현과 목적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일정하게 차 이가 있을뿐 다같이 록색건축의 범위안에 있다고 볼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령에네르 기건축은 건물에서의 에네르기 소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거기 에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경 영에네르기를 령으로 만들자는

기자:그러면 세계적으로 령 에네르기, 령탄소, 록색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과학기술을 적용하고있는가.

데 목적이 있으며 령탄소건축은

환경적측면을 보다 중시하는 건

연구사 김당길:령에네르기건 축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되고있 는 중요한 기술적지표들은 나라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 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보고있 다. 최상의 보온, 열다리가 없는 건축구조, 완전한 기밀, 위생학 적공기갈이와 열회수, 전기의 효 률적리용을 위한 높은 기술 등이 다.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는 령 에네르기건축실현을 담보하는 초보적인 조건으로 된다. 령탄소 건축에는 에네르기효률제고, 자 연에네르기의 리용, 에네르기리 용항목들에 대한 지능적인 관리 기술을 비롯한 선진과학기술들 이 도입된다. 록색건축에서는 령 에네르기건축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들과 함께 지붕 및 벽체의 록화와 토지절약 등 환경문제가

많이 론의되고있다.

기자:건축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지난 시기 세계적추 세에 맞게 건축물에 자연에네르 기리용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본다. 연구사 백명수:우리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오래전부터

술, 피동식건축기술, 건강생태 건축기술, 지속가능건축기술 등 여러가지 건축기술을 받아들이 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도있 게 진행하여왔다. 이것을 토대 로 하여 우리는 건물에서의 에 네르기분석 및 모의방법과 측정 기술,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동 시에 건물의 기밀문제, 건축구 조적열다리의 완전제거와 같은 시공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부원장 조윤:자연에네르기리 용기술을 받아들여 건물을 건설 하는데는 초기투자가 많이 들지 만 일단 건설해놓으면 그 원가 보상은 수년정도이다.

우리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 들은 령에네르기, 령탄소건축기 술과 같은 록색건축기술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나라의 건축기술수준을 세계적인 높이 에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에네르 기절약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 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 가겠다.

본사기자 김경철

김 은 세계정이 격기강자 국 선 수 <u>O</u> 쟁 H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 통신】우리 나라의 김은국선수 가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 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선수 권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적인 력 기강자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 하였다.

김은국선수는 2010년, 2013 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 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 려져있다.

얼마전 강남군 룡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이곳 농장원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처녀시절 부터 30여년동안 변함없이 농장 에서 보답의 자욱을 새겨가고있 는 김금필동무에 대한 찬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 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 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발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 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사회생활의 첫시작은 누구에

게나 환희롭고 결심도 크다. 김금필동무도 다를바 없었 다. 학교시절 남달리 학습과 조 직생활에서 모범이였던 그에게 는 꿈도 많았다. 그 아름다운 꿈 을 안고 그는 협동벌에 사회의

첫발을 내짚었다. 농사일은 쉽지 않았다. 어느 것이나 손에 설고 생소하였다. 그는 남보다 일찍 포전으로 나갔고 그날계획을 수행하지 못

2014년

그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 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 끌어 올리기에서 올림픽신기록, 종합 성적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 고 금메달수상자로 되였으며 특 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력 기경기 끌어올리기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기록과 아시아기록, 세 계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추켜올 리기에서도 한번의 실수없이 련 속 성공하여 영예의 1위를 쟁취

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하고서는 농장벌을 떠나지 않았

다. 밤새워 영농기술도 터득해

나갔다. 바친 노력이 있어 농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 혁

신자명단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둘

자식들이 태여났어도 농장벌에

바쳐가는 그의 마음은 조금도

그의 이름이 오르군 하였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 머니당의 고마운 사랑에 금메달 로 보답할 일념안고 경기장에 나선 김은국선수의 가슴에는 승 리에 대한 자신만만한 담력과 을 쉽게 성공시키고 174kg, 175 배짱이 차넘치고있었다.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구간봉 을 억세게 틀어쥐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여 150kg을 기록하 고 단연 1위를 하였다.

김은국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관중들이 열렬한 박수갈

들어오는 안해를 바라보는 김병

호동무는 가슴이 쩡해졌다. 평

시에 말이 적고 조용한 안해의

마음속에 그처럼 소중한것이 자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거

김병호동무는 며칠동안 짬시

리잡고있었는줄 미처 몰랐다.

요. 하지만 우리 힘을 합쳐 잘해

보자구.》

채를 보내며 그를 축하해주었다.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기술을 련마해온 그는 신심에 넘쳐 추켜 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70kg kg을 런속 들어올림으로써 이 종

목에서도 맞다든 모든 선수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하였다. 김은국선수는 종합 325kg으

로 다른 선수들보다 9kg이상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리고 남 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제1위 다. 돼지기르기에서 경험있는

과시로 된다. 단위들도 찾아다니며 배웠다.

였다.

그 나날에 그는 새로운 첨가 제에 의한 선진적인 사양관리방 법도 터득하여 돼지의 비육속도 를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그렇 게 품들여 기른 돼지들을 사회 주의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에게 보내주고 한해에 질좋은

값높은 ☞☞☞■ 강남군 룡교협동농장 농장원들이 틀려준 이야기 ▮☞☞☞☞

변함이 없었다. 자식들이 커갈수록, 가정의 행

복이 늘어날수록 그의 마<mark>음속</mark>에 는 보답의 마음이 더욱 커갔다. 몇해전 4월, 학교선생님들과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맏아들 현일이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 던 날 그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보답은 미처 따라서지 못하 는데 사랑과 은정은 날이 갈수

록 더해만지니…》 그로부터 며칠후 집뜰안으로 리를 큼직하게 지었다.

농사일을 하면서 한두마리도 아니고 10여마리의 돼지를 한 번에 기른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 이 아니였다. 집짐승들이 커가고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먹이보장과 사양관리에서 걸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김금필동무는 돼지먹이를 해 결하느라 분주히 뛰여다녔다. 그의 손에서는 돼지기르기에 필

간을 리용하여 여러카의 돼지우 거름을 수십1씩 생산하여 논발 에 실어내갔다.

몇 해 전 1월,위대 한 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 자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주 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의 가 슴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그날 그는 10여마리의 돼지를 희천 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 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0여마리의 새끼돼지를 몰고 요한 도서들이 떨어질줄 몰랐 김금필동무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여 은정깊은 감사 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김금필 동무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 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과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보답의 마음 을 바치였다. 올해에도 그는 전 승절을 맞으며 여러마리의 돼지 와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후방가족으로서, 공화국공민으로 서 응당 할 일을 한 그에게 어머니 당은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 를 안겨주었다. 지난 10월 조선로동당원의

말하였다. 《보답은 이제부터라고 생각 해요.》

두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영예를 지닌 김금필동무는 잠들 줄 몰랐다. 김병호동무와 마주 앉은 그밤 김금필동무는 조용히

은 프로그람들 그는 오늘도 보답의 길,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이 들어있다. 본사기자 전시회에서

건축분야에 저에네르기건축기

제4차 리스트명칭 우리 나라의 마신아학생이 도 이췰란드의 와이마르에서 열린 제4차 리스트명칭 국제청소년피 아노콩클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콩클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타이, 도이췰란 정된 피아노협주곡들을 관현악 드, 영국 등 22개 나라와 지역에

피아노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콩클은 1부류(13살이하)와 2 부류(14살-17살)로 나뉘여 1, 2, 3선으로 진행되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음악신 마신아학생에게 1등상과 리스트 작품 최고연주상이 수여되였다.

서 온 60여명의 우수한 청소년

동으로 자라난 마신아학생은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 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1부류 1 선과 2선에서 높은 기교와 예술 적기량을 요구하는 작품들을 피 아노독주로 훌륭히 연주하였다. 마신아학생은 3선에서도 지

에 맞추어 섬세하고도 박력있게 연주함으로써 심사성원들과 전 문가들의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았다. 6일에 진행된 페막식에서는 뛰 여난 피아노연주기량을 보여준

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에서 1등 쟁취 이췰란드 와이마르음악학원 교 수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피아노교수들과 전문가들은 한 결같이 마신아학생이 나이가 어 리지만 힘든 곡들을 깊이가 있 으면서도 매력있게 연주하였다 고 하면서 조선의 뛰여난 인재 인 그의 전도가 양양하다고 커 다란 감동을 표시하였다.

나어린 마신아학생이 국제무 대에서 또다시 이룩한 성과는 가 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 육제도의 생활력에 대한 과시로 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콩클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도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제15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전시회

제15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 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 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 제1중학교, 청진제1중학교를 비 롯하여 40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내놓은 1 700

여건의 프로 📖 그람이 출품되 🧂 였다. 그가운데는 교육지원 및

학습프로그람, 모의실험실습 프로그람, 원격 교육지원체계, 시험 및 실력 평가체계 등 교육의 정보화 실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많

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고 교환하게 된다. 개막식이 10일 3대혁명전시 관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

각급 학교들의 교원. 연구사. 학 는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지난 기간 각급 교육기관들의 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프로그람개발, 리용과 업무정보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 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통일헌장을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을 우러러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분렬된 민족의 아픔을 가시 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 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 다. 그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 인 활동으로 가장 정당한 조국 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

렬히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 하신 통일방안들은 모든것이 《애국애족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명안》들이라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 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구현해오신 통일의 근 본원칙이며 공명정대한 통일강 령이다. 언제나 리념보다 민족 을 우위에 놓으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도 조국통일과 관련된 중대한 문건에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시 였다. 》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어느 한 시국토론회의 연단에서 《조 국통일 3대헌장은 통일의 영원 한 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 대단결 1 0대강령, 고려민주련 방공화국창립방안 등 불멸의 대강들은 조국통일의 총적목표

제

망

Ö

반

상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과 학적으로 밑받침한 설계도이 다. 우리 이남의 각계 민중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사상과 리 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 하여 민족공동의 의사와 리익 을 실현하며 통일의 제반 문제 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환히 밝히는 조국통일의 홰불 이라고 격찬하는것은 결코 우

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 단결 1 0대강령,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장군님께서 주석님의 조국통일 사상과 로선을 우리 민족이 변 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신것은 민족사에 아로새겨질 불멸의 공적이다.》라고 격찬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들이야말 로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라 고 칭송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

단결 1 0대강령,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여 자 주통일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주 시고 우리 겨레 누구에게나 접 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도 제시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자 주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앞길 을 열어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탄생도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있겠는가.

하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찬란히 밝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들은 그대로 남녘겨레의 가슴속 에 통일에 대한 락판과 굳센 의 지로 뿌리내리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 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를 받아안고 흥분에 휩싸인 남조선의 한 종 교인은 《나는 김정일령도자님 의 통일저작을 받아안으면서 그분께서 천명하신 통일방략들 이 민족자주리념으로 일관되여 있고 그분의 모든 사색과 활동 도 애국, 애족, 애민의 뜻에 기 반하고있음을 페부로 절감하게 된다.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절대 지

지한다.》라고 웨쳤다. 언제인가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통일인사는 동료들 에게 예지는 위인의 등불이며 령도자의 위대성은 곧 사상리론 의 위대성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 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민족대단결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 기 위한 정확한 길을 명시해주 는 불멸의 통일강령이다. 민족 대단결 5대방침은 그 하나하나 가 애국,애족,애민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되여있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서 특 별히 감명을 받게 되는것은 집 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 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

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 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 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선언한 그것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탁월한 위인,절세의 애국자만이 제시 하실수 있다.》

백발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읽으면 읽을수록, 새기면 새길 수록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애국애족으로 가슴을 끓게 하 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접하 고 《한평생 대학교단에서 보 낸 이 사람이 학자적인 립장과 관점에서 그 누구에게도 반해 버린적은 없다. 그러나 60이 넘은 오늘 나는 한 위대한 학자 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 위대한 학자,그 위대한 인간은 바로 온 민족이, 아니

온 세상이 칭송하여마지 않는 김정일령도자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저작을 보면서 김정일령도자님은 그 누구보다 도 우리 민족을 제일 사랑하시 기에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주 장하시고 누구보다도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뜨거우시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을 제시하실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국이 복잡하고 다사 다난하다 해도 우리는 오직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따라 조 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라고 자신의 격정을 터치였다.

서울에서 사는 한 주민은 동 료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 통일사상과 로선이 담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내보이며

《사실 나로 말하면 지난 독재 〈정권〉 시기 공무원으로 다년 간 근무하며 분렬주의집단의 하 수인으로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관용으 로 대하며 단결할것이라고 하시 였다.》라고 하면서 통일애국 운동에 전심전력할 결심을 피력 하였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 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은 민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 통일사상리론을 연구하는 과정 에 그분께서 천명하신 통일방략 들이 민족자주리념으로 일관되 여있고 그분의 모든 사색과 활 동도 애국, 애족, 애민의 뜻에 기초하고있음을 페부로 절감할 수 있었다.김정일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간이 자기를 찾게 하고 온 겨레에게 민족의 생명 선인 자주의식을 키워주는 활력 소이며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 어세우는 대헌장이고 민족의 진 로를 차란히 밝혀주는 통일의 휘황한 홰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지지 하며 받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이 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 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되 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K

희망과 위 해 미래

들 의 후 대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동포들은 그 어 디에서 살건 자기 민족의 넋을 잃지 말고 민족성을 지키며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oh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청 상회) 에는 좋은 전통이 있 다. 현청상회들이 륜번제로 해마다 《우리 민족토론회》 를 성대히 개최하는것이다. 이 행사는 새 세대 동포상공 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 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올해의 행사주최는 나가노

현청상회의 몫이였다.지난 7월 나가노현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토론회 — 2014》의 주제는 《피워 가자! 웃음넘치는 민족의 꽃》 즉 민족교육이였다. 허종만의장을 비롯한 총련중 앙상임위원회와 총력사하 단 일단체,사업체의 책임일군 들 등 2 000여명의 동포 들과 일본인사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제 1 부 《계승되고있는 넋 과 재산-나가노의 민족교육 4 5년》에서는 뻐스로 왕복 3시간이나 되는 먼거리이지 만 자식을 주저없이 우리 학

교에 보내고있는 동포가정들 을 비롯하여 민족교육에 대 한 지역동포들의 애틋하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 주는 사실자료들이 널리 소 개되였다.

제 2 부 《우리 학교의

1 0년후를 내다보며》와 제 3부《나가노현청상회의 실 천-메아리계획》등을 통해 행사참가자들은 동포수가 많 지 않은 나가노현에서 민족 교육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 져가고있는 현실을 목격할수 있었다.

총련 나가노조선초중급학 교를 졸업하고 아이찌조선중 고급학교 고급부에서 공부하 는 한 녀학생이 연단에 올라

다진 결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를 위해, 학교와 동 포사회를 위해 그 무엇도 아 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어머 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 대와 믿음에 보답할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앞으 로도 조선사람으로서 당당히 가슴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준비책임자 인 천영민동포의 발언도 감 동적이였다.

《민족교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 어도 우리가 학교를 지켜나 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 와 희망이 가득한 우리 학교 를 우리의 손으로 지켜나갑 시다. 우리 청상회가 주역이 되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의 전통을 지키고

빛내여나갑시다.》 토론회는 동포사회에 휘몰 아치는 민족성고수의 열풍을 잘 보여주었다.

묻

국 의 국을 방문한 총련 도꾜조선 중고급학교 학생들이 총련애 국림을 찾았다. 지금으로부 터 10년전 중화군 마장리 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국림이 꾸려졌다. 지금 여기서는 그동안 재일동포들이 기증한 무려 5 0만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조국의 대지에 든 든히 뿌리박고 무성한 숲으

의 애국지성에 의해 총련애

로 설레이고있다.

총련애국림기념관에서 그

지난 7월 중순 어느날 조 에 대한 해설을 들은 동포학 생들은 커다란 감동속에 숲 을 돌아보았다.

매 나무마다에 기증단체 와 동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속에서 자기 지역 동포들의 이름을 찾아본 학 생들은 저마다 탄성을 터치 였다.

한 학생은 총련애국림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렇게 많은 동포들의 애국지 성이 깃들어있는줄은 몰랐 다고 하면서 앞으로 선대들 처럼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으 며

많이 할 결심을 피력하였 다. 다른 학생들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동포들의 진정이 이 총련애 국림에 그대로 슴배여있다 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이날 자기들이 가져온 나 무모들을 정성껏 심으며 학 생들은 생각하였다.

(오늘 심은 이 한그루의 나무모가 아름드리거목으로 솟구칠 그때면 우리도 애국 의 큰 기둥이 될거야.) 본사기자 허영민

못살 인간생지목, 최악의 인권불모 빚 어 낸 혅

류행어에 비낀 사 회 의

D +++++++++

악정 Ol 모 습 지금 남조선에서는 청춘

의 삶을 포기한 수많은 청 년들이 비판과 절망속에 몸 부림치고있다. 그 비참한 모 습은 최근 남조선항간에서 나도는 류행어들에도 그대 로 비껴있다.

《3 포세대》, 《3 불세 대》,이것은 심각한 생활난 으로 사랑, 결혼, 해산을 포 기하고 불안, 불만, 불신속에 사는 20대, 30대의 청년 들을 두고 하는 소리이다. 남조선사회에서 악화되는 실 업위기, 특히는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의 일단이 괴상한 류행어속에 그대로 함축되여

오죽 실업사태가 심각하 면 20대의 90%는 백수 (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 리 사회의 뼈아픈 자화상》 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 이라고 개탄하였다.

참사의 진실을

을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 에 대해서는 《장미족》. 31 亚 살이 되면 취직할수 없다는 데서 《삼일절》, 20살도

라는 말이 류행어로 나돌겠 는가. 청년실업의 만연은 청년들 을 타락시키고 사회의 건달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

다는 뜻에서 《이퇴백》이

자. 도태자로 만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 은 《그냥 놀고먹는 〈쉬는 인구〉, 자포자기한 〈청년 백수〉가 72만여명》에 달 하고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포기하고 전자오락이나 당구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있는 광경 을 두고 《그들의 모습은 우

경약을 자아내는 륜 범

최근 남조선의 부산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는 시신을 이틀동 안이나 그대로 내버려둔것 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런 패륜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 어나는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욱 잔인하여 사회의 불안

을 조성하고있다. 울산에서는 바깥에 나가 놀게 해달라며 매달리는 8살 짜리 딸애를 이붓엄마가 비뼈가 부러지도록 때려 살 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어느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 라는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참 혹 한 가진 녀인과 공모하여 자기 아들을 안마기와 골프채 등 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도 폭로되

재산을 탐내다가 어머니와 친형을 무참하게 살해한 인 천살인사건 역시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상상을 초월하 는 가족폭행사건수는 년평균 4 0 0건이상에 달하고있다 고 한다.

한 언론은 이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썩은 사회의 어두운 리면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이라고 까밝혔다.

한 자살자의 유서 물은 인천에서 사는 한 가

족의 자살소식에 대해 전하

였다. 가족의 세대주는 서울의 한 페기물업체에 일자리를 가지고있었다. 그의 로동은 자기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임금 몇푼을 받는 고 용살이에 불과하였으며 로동 력이 상품으로 팔리는 과정

이였다. 그것은 사회와 집단, 자기 자신을 위한 로동인것이 아 니라 자기의 로동력을 깡그 리 소모하여 기업주의 배를 불리워주는 억울한 고역의

런속이였다. 실업자인 그의 안해는 어 뗯게 하나 가정을 먹여살려 보겠다고 수치와 멸시를 무 릅쓰고 동냥도 해보았고 일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 자리를 구해보려고 거리를

방황하기도 하였다. 허나 살

길은 점점 더 막막하기만 하 ₹ 였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 ₹ 있다.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 돛 었다. 모녀는 끝끝내 자살의 ♬

길을 택하였다. 숨진 처자를 뒤늦게야 발 견한 세대주는 너무도 억이 ₹ 막혀 뒤따라 목숨을 끊고말 🕏 았다.

시체옆에는 타다남은 무연 탄과 안해가 남긴 유서가 있 ♪ 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 혀있었다.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 고 무진 애를 써왔다. 허나

있게 해달라. 》 피눈물이 슴배인 한 자살 지의 유서, 그것은 사람 못살 ‡ 인간생지옥 남조선사회를 세 ₹ 한 인도적지원을 진행하는듯이 상에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선 언

북남관계개선에 남조선 각계에서 괴뢰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일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 본부,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24개 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들이 있

었다. 한 기업가는 남북관계를 악화 시키고 경제협력을 가로막은 《정부》의 처사로 인해 하루아 침에 거지신세가 되였다고 개탄

하였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세상은 너무도 각박하고 야 🕻 은 《정부》의 《5.24조치》 속하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 🕻 로 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 ₹ 고 하면서 《5.24조치》를 즉 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수 ₹ 각 해제하고 금강산판광을 재개 할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북에 대 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나설것을 요구 거짓선전하고있다고 까밝히면 서 실질적으로 북과 대화하고

급선무는 북에 대한 삐라살포 행위를 중단하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성명이 랑독되였다.성 명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정부》 에 호소한다고 하면서 《5.24 조치》해제, 삐라살포제지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4일 남조선신문 《한겨 레》는 사설에서 남북사이에 제 2차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책임은 관계 개선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고위급접촉파탄 의 직접적원인으로 된 삐라살포 에 대해 그것을 막을 법적인 근 거가 없다고 한것은 남북관계를

【조선중앙통신】

와! 민통선 주민을 죽음으로!

중지를 요구

요구하며 롱성투쟁을 줄기차 서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 게 벌려왔다고 밝혔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 상》에 의하면 《세월》호참 사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65개 시민사회단체 들이 6일 괴뢰국회앞에서 기 자회견을 가지고 옳바른 특별 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 려나갈것을 서언하였다. 발언 자들은 그동안 유가족들과 국 민들이 《세월》 호참사의 진 이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

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진 상규명에 방해가 될 독소조항 을 빼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 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 는 《정부》와 《국회》에 맞

> 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들 은 각계가 지난 200여일간 《세월》호참사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려왔던것 처럼 앞으로도 현대활동으로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 주 화 투 쟁 에 남조선의 서울대학교,연

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 롯한 59개 대학 민주동문회 들이 1일 서울에서 전국대학 민주동문회협의회를 결성하 고 사회의 민주화실현을 위 한 투쟁에 나설것을 주장하 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권》하에서 민주화 집권세력과 맞서 싸울것이라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괴뢰

나 설 것 을 운동이 유린당하고있다고 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하면서 정의를 짓밟는 권력 은 강도집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불법선거로 권력을 차지하 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권 력, 대참사를 빚어내고도 책 임은커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요구를 외면하는

이어 선언문이 랑독되 🕽

선언문은 청년학생들이 지 난 시기 온갖 억압과 불평등 에 맞서 적극 투쟁해온것처 럼 앞으로 한데 뭉쳐 민주화 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노들의

삐 라 살 포 행 위 의

기한 연기라는 류례없는 매국 협상을 진행하

전 《玄子》 북침전쟁연습 최대규모의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0일 괴뢰호전광들 이 북침전쟁연습인 《호 국》훈련을 끝끝내 강행하

였다. 괴뢰륙, 해, 공군과 해병대 등 33만여명의 방대한 병력 과 미제침략군무력 그리고 2만 3 000여대의 기동장 비들과 60여척의 함정, 각 종 비행기들이 여기에 투입 되였다.

규모는 지난 시기와 대비해 중합동훈련위주니 하고 뗘 볼 때 1996년에 《호국》훈 들어댔다. 련이 시작된 이후 최대라고 밝혔다.

괴뢰호전광들이 해마다 《호국》북침전쟁연습을 벌 려놓고 광분하여왔지만 이 번처럼 엄청난 무력을 동원

하여 남조선전지역을 전쟁 연습마당으로 만든것은 처 음이다.

괴뢰군부깡패들스스로가

이번 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것임을 숨김없이 내뱉 고있다. 이날 괴뢰합동참모본부는 그 무슨 《국지도발과 전면 전》을 운운하며 우리를 걸

고드는 도발적망언을 늘어 놓으면서 최고도의 군사대 《련합뉴스》는 이번 참가 비태세니, 지상과 해상, 공 괴뢰국방부 대변인은 전군

이 군사분계선일대를 비롯한 전전선에 걸쳐 훈련을 실시할

국》훈련은 력대 최대규모라 고 거리낌없이 떠벌였다. 모든 사실은 괴뢰호전광 들이야말로 북침전쟁열에 들뜬 광신자들이고 전쟁위 기를 몰아오는 주범이며 북 남관계파탄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주

련을 했던 례년과 달리 이번

에는 모든 군단급부대가 참가

한다.》고 하면서 올해 《호

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은 지금으로 부터 4년전 《호국》북침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며 우

리에게 도발을 걸었다가 불 벼락을 얻어맞은 연평도사 건의 뼈저린 교훈을 명심하 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소 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

이 아니기때문이다. 서 전시작전통제권문제는 지 난 조선전쟁이 발발된 이후 특등친미주구인 리승만역도가 맥아더에게 남조선괴뢰군의 였다.그 이후 남조선강점 미 통수권을 넘겨준것을 발단으 로 하여 산생된 문제이다.그 이후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호상방위조약》체결과정에 관에게 넘어간 괴뢰군에 대한

도 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광주인민봉기자들 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남조 선괴뢰군부깡패들의 야수적 인 탄압만행을 묵인하고 배 후조종한 미국의 책동은 남 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자주 화기운이 높아지고 남조선강 점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였 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지난 1994년 《작전통제 권》의 한 구성부분인 평시 작전통제권을 남조선당국에

어도 전시에는 미국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절 제침략군이 길가던 두 녀중학 생을 장갑차로 깔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남조선인민 들의 반미감정은 또다시 폭발 직전에 달하였다. 더우기 진보 적인 정치세력들속에서 남조 선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군사분야에서부터 미국의 간섭을 뿌리뽑아야 한 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반환을 요구하 는 사회 각계의 움직임이 활 발해짐으로써 미국은 더는 빠 져나갈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제권을 남조선에 이관하는 동 《전, 평시작전협조본부》라 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투쟁과 피의 대가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낼수 있는 자그마한 싹을 마련하게 되였다.

피어린 싹을 하루아침에 짓뭉 다름아닌 보수집권세력이다. 인민들을 기만하며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역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

은 2012년에 실행되게 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미국과 의 동맹을 해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시기를 연기해달라 고 상전에게 애걸복걸하였다. 하여 2012년에 실행되게 되 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2015년 12월로 연기되게 되 였었다.

문제는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 역시 대미굴종사상이 뼈속까지 들어찬자들로서 리 명박패당에 짝지지 않는 친 미사대매국노들의 집단이라 는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우고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현 괴뢰패당은 집권하자마자 그 의 무기한 연장을 위한 구걸 질과 모의판에 매달렸다.괴 뢰당국자들이 뻔질나게 미국 을 찾아다니며 남조선 각계는 물론 주변나라들의 반대와 우 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고 도미싸일방위체계를 남조선 에 들여오기로 하고 수많은 첨단살인장비들을 미국으로 부터 구입하겠다고 한것도 결 국은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연기 에 달리는 볼수 없는것이다. 오히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

였다. 괴뢰당국의 반역적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의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부 담과 생명안전의 위협뿐이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앞 으로 괴뢰당국은 남조선강점 미 군기지이전의 지연과 새로운 기 지건설과 관련한 막대한 량의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남조선은 《전략적유연성》과 《아시아재균형》의 간판밑에 중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마치고 아시아로 이동하 는 미군부대들의 림시 또는 완

전거점으로 될수 있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류하는게 맞다.》 느 니,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 는 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 한것이라느니 하는 얼빠진 망 발들을 늘어놓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 력이야말로 동족대결과 친미 사대에 환장한 매국반역의 무 리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화근이라 는것을 톡톡히 보여주고있 다.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까 개버린자들이 있으니 그것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밖 지도 저들의 동족대결야망실 현을 위해 서슴없이 팔아먹는 역적무리들이 갈 곳이란 력사

의 무덤뿐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호 국 책 적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괴뢰군의 관계자는 《2개 군단급부대가 기동훈 반 인 민 적 악 정 에 동 족 대 결 과

민 심

의 어느 한 건물우에서 괴뢰 집권자를 풍자한 삐라가 뿌려 져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집권자 박근혜의 몰골을 형

하면 10월 31일 서울 마포구 는 무려 4 000여장에 달하 를 차던지고 《세월》호참사 였다 한다.

녈

살포되였었다. 이것은 반공화 상한 그림에 현 《정권》을 국삐라살포망동으로 모처럼

남조선 《MBC》 방송에 의 비난하는 문구가 씌여진 삐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 에 대한 책임회피, 공무원년 지난 10월 중순에도 이러 금개악 등 반인민적악정만을 한 삐라가 서울 광화문일대에 일삼는 괴뢰패당에게 분노한 남녘민심의 반영이다.

【조선중앙통신】

집권세력이 전 시작전통제권전 환을 무기한 연기한데 대한 단 죄와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투쟁의

남조선의 야당들은 전시작 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이 부끄 럽지도 않은가고 하면서 당국 자들을 단죄하고있으며 시민 사회단체들은 남조선강점 미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전시작전 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가 난 괴뢰군의 움직임이란 상상 남조선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된것이라는것을 전한 미 국출판물의 내용을 전하면서 막대한 량의 혈세와 민중의 리익이 외세의 리익을 위해 탕진되고 짓밟히게 되였다고 개 탄하고있다.

온 남조선사회가 괴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데 대해 그렇듯 강력히 반발하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전시작

전통제권의 행사여부가 괴뢰

정권의 대미예속적이며 굴욕

적인 정체를 극명하게 보여주

는 대표적징표라고 해도 과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통칭 《작전통제권》으로 명 명되여 남조선강점 미군사령 판할권은 전시는 물론이고 평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였다. 남 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직접 적인 감독과 통제체제를 벗어

이양하는 놀음을 벌려놓으면 서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반미의식을 마비시키

려고 획책하였다. 결과 남조선의 집권자는 평 시에는 괴뢰군을 관할할수 있 반짜리 군통수권을 가지게 되 지난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 시에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는것을 새로 만들어낸다는것 을 핵으로 하는 그 무슨 《전 시작전통제권전환리행계획》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이

은 선임자들보다 한수 더 떠 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

망 해 가 는 자 의 최 후 발

최근 미해군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초음 속 및 아음속목표물들을 《SM-6》요격미

싸일들로 소멸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 요격미싸일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미

해군에 배비된것이라고 한다. 새로 배비되자마자 그 시험에 달라붙고 있는 미군부호전광들의 미싸일소동은 세계 를 미싸일방위체계로 기어이 뒤덮어보려는 야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얼마전에도 미호전세력은 태평양수역에 서 이지스체계성능시험을 강행하였다.

시험에서는 미해군함선 《죤 폴 죤스》호 가 함선에 설치된 이지스체계를 리용하는 레이다로 하와이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 싸일을 탐지추적하였다고 한다.

각종 미싸일요격 및 추적시험을 강행 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미싸일방위체계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서 주요한 군사적수단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을 견제압살하는데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무기라고 보고있는 미국이다.

이로부터 랭전시기 《별세계전쟁계획》의 복사판인 미싸일방위체계로 저들에게 맞 서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해보려고 악랄하게 획책하고있다.

최근년간 유럽과 중동, 아시아태평양지 역에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날뛰고있는 미국이 이번에 해군함선에서 요격미싸일발사시험을 강행한것은 그 한 고리이다.

더우기 문제시해야 할것은 이와 때를 같 이하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기지에서 《MQ-8C 파이어 스카우트》무인기의 경사 면정밀착륙시험을 감행한것이다.

이 무인기는 정보수집, 감시, 정찰임무를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지난 시기 숱한 무 인기로 다른 나라의 평화적주민들을 학살 하여온 미국이 경사면에서 그 착륙시험을 강행한것은 산간지대에서 무인기가 자유자 재로 활동하면서 살인지령과 정찰임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

다. 이것은 미군부깡패들이 다른 나라의 지 형조건에 맞게 무인기를 개조시킴으로써 침략과 살륙, 군사적간섭과 정탐활동을 더 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겠다는것을 선포한것 이나 같다.

미국이 전쟁장비들의 살상력제고와 현대 화에 광분하고있는 목적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비할바없는 절대적인 군사기술적차이로 상대방을 제압, 굴복시키 자는데 있다.

미호전세력들의 발광적인 무장장비현대 화책동으로 하여 현시기 평화와 번영을 바 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공동 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평화》와 《군축》에 관심 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지만 그것은 세 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으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 기 위한 위장술책에 불과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여러차례의 전쟁들에 막대 한 자금을 탕진한 미국은 지금 기력이 빠 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 로 군비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미 국의 현 실태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침략적인 무장장비들을 현대화, 첨단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려 고 발광하고있다.

사태는 살인적인 무장장비를 현대화하 는것을 통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폭로해 준다.

미국의 책동에 의하여 세계가 위험한 군 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 고있다.

미국의 로골적인 무장장비현대화책동에 대응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 화에 힘을 쏟고있다. 이것은 국제적인 정치 군사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미국이 밀려나고있는 《유일초대국》의 지 위를 부지해보려고 무던히도 기를 쓰고있 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미국이 첨단무기들을 개발배비하면서 여 전히 세계를 제패해보겠다고 날뛰는것은 멸망해가는자의 최후발악에 불과하다.

미제의 무모한 전쟁장비개발책동은 국 제무대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부채질 하고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결과밖에 가 져올것이 없다.

인류의 문명발전에 리용되여야 할 최신 과학기술성과들을 전쟁장비의 현대화, 살상 력제고에 악용하는 미제의 책동이야말로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범죄적

망동이다. 미국은 수치와 파멸을 촉진시키는 시대 착오적인 망상에서 깨여나 무모한 무력증 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제재는 미국의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얼마전 인터 네트홈페지에 《미국의 제재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미 국의 대조선제재책동을 단죄하 는 글을 올렸다.

글은 미국이 《인권》이니, 《테 로지원》이니 하는 등의 구실을 걸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많은 제재조치들 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털거 하고 그러나 제재는 오히려 사 람들속에서 반미감정이 더욱 고 조되게 하였을뿐 그들을 반제자 주의 길에서 조금도 탈선시키지 못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조선의 경우는 미국의 제재책 동이 실패한 가장 전형적인 실 례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최근에 와서 더욱 우심해졌다.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위성발 사와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무 턱대고 걸고들면서 추종세력들 을 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

페지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김일성주석께서는 1980

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을

쟁

호

을 공동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서 나타

나고있는 이중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테로행위를 근절하기

방안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프랑스조선

친선협회가 최

근 인터네트홈

고 말하였다.

회 《제재결의》까지 조작해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이에 끄떡도 하지 않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일

심단결이 더욱 강화될뿐이다. 실지로 지금 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혹한 제재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 국, 핵보유국인 조선은 강성국 가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 을 이룩하고있다.

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최근에만도 문수물놀이장, 미 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 대 중문화생활거점들을 세계적인 창조물로 일떠세움으로써 인민 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이 바로 가장 가혹한 미국의 제재를 받 고있는 조선의 현실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저들

의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 에 있으면서 경제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위용이 세계를 더욱 진감시키게 될뿐이 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미국 의 제재는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불이다

파키스탄신문 《팔리먼트 타임 스》가 10월 31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단죄하 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나라의 주인된 조선인 민의 인권실상이 가장 포괄적으 로 정확히 반영된 조선인권연구 협회 보고서가 유엔총회 및 유 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 로 배포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발표되자마자 국제 사회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곳 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와 관련한 립장을 명백히 밝히 는 통보모임들이 진행되였다.

반영되여있다.

많은 나라들이 조선인권연구 협회 보고서가 조선의 우월한 인권실태를 포괄적으로 서술한 문건이라고 평하면서 인민대중 의 인권향유를 더욱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호응하고있다. 한편 저들대로의 억측과 악감 을 뒤섞어 만들어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무슨 《이권보 고서》에 대하여서는 조소와 비

난이 고조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이번 유엔총회 에서 상정시키려는 반공화국《결 의》라는것은 이중기준의 전형으 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을 바 라는 나라들이라면 응당 이를

저지시켜야 할것이다.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인권》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가장 우월한 조선식사 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인권향 유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것이다.

통일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6 上**

북과 남은 6. 15북남공동선언에서 조선민 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것을 확약하였지 만 현 남조선당국은 《흡수통일》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 회 주 의 재 건

스위스 단체 인터네트에

를 내리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 는 과학이다》 발표 20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대원수서거 3돐 스위스회고위원회가 1일 인터네 트홈페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글

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 83(1994)년 11월 1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 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로작을 발표하시여 쏘련과 동유럽나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반 동적인 《사회주의의 종말》론을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추

> 글은 로작의 상세한 내용을 소 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 는 과학이다》는 세계의 진정 한 혁명가들이 사회주의재건을 위해 추켜들고나가야 할 지침이 며 라침판이다.이 로작은

게재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 진보적인민들은 력사적인 이 로작을 《우리 시대의 공산당선 언》이라고 찬양하고있으며 김정일동지를 걸출한 사상리론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오늘날 사회주의조선은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사회주의의 불패의 선군보루로 강화발전되였다.

미국 핵무기시험 강행

미국이 9월과 10월에 플루토 니움을 리용한 핵무기성능검사 시험을 강행하였다고 4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하였다.

시험에서는 핵무기성능평가 를 위한 융합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강력한 X선을 방출하는 《제트 머쉰》이라고 하는 장치가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뉴멕시코주 싼디아국 🥻 립연구소에서 이러한 시험소동 을 거듭 벌리고있다.

로 와 <u>o</u>[화 할 것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책임자 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테로 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하였다. 그는 테로와의 투쟁은 결코 로씨야에만 해당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테로투쟁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 요구

회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 하였다.

하면서 쁠럭불가담운동은 주권 국가들에 대한 외세의 일방적 이며 억압적인 조치들을 견결

지와 현대성을 표시하면서 그는 미국은 실패한 제재정 책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 회 적 진 보 와 위하여 🌇

천연가스증산계획

방안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런방제방안은 조선통일의 가

이 방안에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이

장 현실적인 방도이다.

이란이 2017년까지 하루 천 연가스생산량을 2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나라에서는 매일 5억 5 000만m³의 천연가 스를 생산한다고 한다. 한편 이 란에서 올해 3월 21일에 시작 된 현 이란년도의 첫 7개월동안 에 액화가스의 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광 업 발 전 전 망 다. 6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생활조건개선 베네수엘라정부가 최근 주민 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새로 운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저로임이 15% 높 아지게 된다. 3일 이 나라 대통

탄자니아에서 나무심기에 힘 을 넣고있다. 6일 이 나라 정부 는 산림면적을 늘여 기후변화 의 영향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앞으로 16년동안에 수 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을데 대 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실 현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할당되 였다 하다.

여러 나라들 협조 말레이시아와 브루네이가

3일 농업, 과학기술, 통신, 정 보 등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하였 다. 이에 앞서 2일 까타르와 수

벌가리아의 쁠로브디브에서 5일 마약을 싣고가던 승용차를 단속하여 40kg의 헤로인을 압 수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 지 전국적으로 약 800kg의 헤

【조선중앙통신】

뻬 루 에 서 지 진 피 해

를 발표하여 이스라엘이 팔레스 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저지른 전 쟁범죄행위를 규탄하였다. 보고 서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의 거주지역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전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물순한

-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 즈볼라흐 총비서 쉐이크 하싼 나스랄라흐가 4일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위협책동을 배

– 국제대사령 이 5일 보고서

일삼으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고 폭로 하고 이것은 유태복고주의정권 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 다고 말하였다.

- 이란외무 성 대변인이 격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당국이 레바논에 대한 비난을

> 히즈볼라흐는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항구와 비행장들을 타격할 준비가 되여

있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 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이슬람 교도들의 알 아크사사원출입을 금지시키데 대해 규탁하면서 유 태복고주의정권이 그로 인한 후 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역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 절대로 침묵을 지키지 말 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해 O

주를 비롯한 남부의 넓은 땅은 메히꼬령토로 되여있었다.

미국이 메히꼬로부터 땅을 빼 앗을 야망을 품은것은 동남부에 있는 루이지아나주를 프랑스로 부터 사들인 이후부터였다. 원래 루이지아나주는 프랑스

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루이지아 나주에서 노예들의 봉기가 일어 났다. 그 봉기를 진압하려다가 끝내 실패한 프랑스의 나뽈레옹 은 루이지아나주를 1 500만 US\$라는 헐값을 받고 미국에 팔 아넘겼다. 미국은 뜻밖의 횡재를 하였다. 프랑스와의 협정문에 수 표하는 한번의 펜놀림으로 이룩 된 루이지아나주의 구매로 미국 의 령토는 단번에 두배로 늘어

양키의 선조들은 미국의 서부 및 남부에로의 령토확장은 《미 국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 이며 피할수 없다. 》라고 떠벌이 며 전쟁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롯한 메히꼬의 일부 지역을 어 떻게 집어삼키였는가. 1821년 에스빠냐로부터

독립한 메히꼬는 북부지역 주들 의 발전을 위해 정착민들에게 헐 값으로 토지를 제공해주었다. 이 것을 본 미국의 앵글로색슨족이 주민들이 텍사스지역에 기여들 었다. 처음에는 200명이, 후 에는 3만 5 000여명이나 들어와 《정착》하였다. 그들은 토지와 재부에 환장이 되여 메 히꼬국가의 국민으로 되겠다고 거짓약속을 하고는 땅을 사가졌 다. 그리고 이 지역의 법률을 무

메히꼬정부가 이 지역에 대 한 통제를 강화하자 텍사스의 앵글로색슨족이주민들은 반란 을 일으켰다. 메히꼬정부가 군 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

사스는 메히꼬로부터 독립하여 텍사스공화국은 오늘날의 텍 사스주령토와 오클라호마주, 캔 사스주, 콜로라도주, 뉴 멕시코 주 등의 일부 지역을 망라하고

있었다. 1845년에 텍사스의

미국이주민들이 《통합제의》안

자 미국은 메히꼬에 대한 전쟁 열을 올리였다. 얼마 안있어 텍 을 미국에 제기하고 미국회 상 하량원이 그 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은 텍사스공화국 을 먹어치웠다.

텍사스의 병합은 메히꼬를 격 분시켰다. 메히꼬는 즉시 미국 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다.

메히꼬와 미국사이에는 분쟁 이 일어났다. 메히꼬가 강경한 립장을 취하자 미국은 《전쟁은 메히꼬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였 다. 》고 요란스럽게 나발을 불어 댔다. 1846년 5월 미국은 메히꼬와의 전면전쟁에 정식 들

어간다는 선전포고를 하였다.

미군무력은 뉴 멕시코와 캘리 포니아지역들에로 진격하였다. 이 지역들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것으로 하여 미군무력은 별로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할수 있었다. 그리고 메히꼬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미국이 주민들과 2개의 미해군 분함대 와 합세하여 캘리포니아지역에 서 통제권을 차지하게 되였다.

메히꼬의 저항은 완강하였다.

에서 메히꼬인들의 피가 흐르고

미국은 마침내 메히꼬의 수도 메히꼬시를 점령할수 있었다.

히꼬로부터 항복서와 같은 굴욕 적인 협정문을 받아냈다.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하여 미 국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주, 유타주 그리고 아리조나주 의 대부분을 빼앗아냈다. 그 이 후에는 아리조나주의 남부와 뉴 멕시코지역을 또 손아귀에 틀어

로씨야의 한 신문은 미국이 메히 꼬로부터 여러 주들을 빼앗아낸 것을 비롯하여 침략전쟁을 통한 령토확장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가》라고 비평하였다.

것을 통해서도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 인민들의 생명과 생 활권을 무참히 빼앗은 날강도 국가이라는것을 생동하게 알수

본사기자 리경수

비롯한 12명의 권 노벨평화상수상자 들이 미국대통령 오바마에게 공동 으로 편지를 보내 였다. 그들은 편지 에서 미국이 2001년 9.11 사건이후 수감자

> 등 국제법을 준수 할것을 강력히 요 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가 고조되 히 응당하다.

공인된 국제법 에 의하면 사람에 게 고통을 주는 고 문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전쟁포 로대우에 관한 제 네바협약에도 억

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죽게 하 거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 위들을 금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감행했을 때에는 엄중한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제재를 가 한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테로》의 미 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를 침공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테로분자》로 몰아 감금하였으 며 그들을 대상으로 극악한 인 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브형무소에 감금된 수감자들 의 옷을 벗기고 인간피라미드를 쌓게 하였는가 하면 사나운 개 를 풀어놓아 공포에 떠는 수감 자를 보고 너털웃음을 쳤다. 미제침략군 녀병사들까지도 벌거벗은 이라크인남성수감자들

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는 추 태를 부리였다. 아프가니스탄강점 미군도 바 그람공군기지수용소에서 아프가 니스탄인포로들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 고문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지어 인간의 두뇌 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

로 수감자들을 학대하였다. 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은 이뿐 미국은 판따나모미해군기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행 위에 항의하여 단식롱성을 한다 고 하여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

미국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까지 하였다. 이런 야 만적이며 중세기적인 인권유린 만행들은 세계도처에 널려져있 는 다른 미국의 비밀감옥들에서 도 강행되였다. 그것을 주는 자료는 수다하다.

이런 미국을 두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들고일어난것은 당 연하다.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도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만행들 이 정부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개별적인물들에 의해서 감행 된것처럼 아닌보살하고있다. 해외에 비밀감옥들이 존재 한다는것도 애써 부인하고있

로 감출수 없다.

지시밑에 감행된것들이다. 2001년 9.11사건발생 후 미집권자의 승인밑에 해외비 밀감옥들이 운영되고 새로운 고 문방법들이 도입된 사실이 그것

국 장판은 미국집권자가 9.11사건이후 혐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심문방법의 도입 을 허용할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전 미국대통령 부쉬 자신도 9.11사건혐의자들

올해에 들어와 미국신문 《워 **싱톤 포스트》도 미중앙정보국** 이 지난 2002년 3월 어느

유엔주재 이란상임대표가 최근 유엔총회 회의에서 쁠럭 불가담운동을 대표하여 연설 하면서 반꾸바봉쇄를 당장 철

그는 미국의 집요한 경제봉 쇄로 말미암아 꾸바인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꾸바정부와 인민에 대한 지

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 현실적인 련방제방

식에 따르는 통일을 주장하면

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반

액화가스수출 증대

76% 늘어났다. 짐바브웨에서 올해 광업부문 생산이 6% 장성할것으로 예견 되고있다.이 부문은 나라에서 수출의 45%를 차지한다고 한

령이 이에 대해 밝혔다. 나무심기계획

단은 군사분야에서 협조할데 관 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한편 로씨야와 인도네시아가 6일 군 사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5일 로씨야와 인디아가 에네르기, 민항, 하부 구조건설 등 경제, 무역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약 압 수

로인이 적발처리되였다 한다.

라비루스감염증을 한



따 리까대통령을 들을 대상으로 감 행한 고문실태를 완전히 공개할것

교 고있는것은 지극

이 아니다.

류중의 전쟁포로 들을 인도주의적 넣는 방법으로 강제급식을 시키 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라크강점 미군은 아부 그라

다. 그러나 닭잡아먹고 오리발

을 내몰아 그들을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코구멍에 호스를 밀어

인권유린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

내미는 격의 파렴치성은 절대 진실은 까밝혀지기마련이다.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은 철두 철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을 증명해주고있다. 이에 대해 당시 미중앙정보

에 대한 물고문을 승인한데 대 해 고백하였다.

한 나라에 설치한 비밀감옥에 서 한 테로혐의자를 고문하였 는데 더 얻어낼 정보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십차례 에 걸쳐 물고문을 가한것을 비 롯하여 잔인한 고문을 계속한 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국은 조직적인 인권유린범 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문제는 이러한 고문만행들이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현 미행

정부시기에 와서도 계속되고있

는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신문

《보스톤 글로브》까지도 《수감지

학대행위자료가 계속 폭로되고 있는것은 미국의 수치이다.》라 고 개탄하였겠는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현 당국자들은 벼룩도 무색케 할 정도인 저들의 인권

필리핀에서 미군병사가 26살 난 현지인을 살해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낸것이 불 과 얼마전의 일이다.

인권유린범죄자이다. 인권유린범죄에는 시효란 있 을수 없다. 미국이 인권재판정 의 피고석에 앉아 준엄한 력사 의 심판을 받을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유린만행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지금 국제사회의 분노는 하늘 에 닿았다. 세계는 다시한번 절 감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세계최악의 인천불모지, 인천유친의 왕초

최초의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동부연안에 위치한 13개의 크 지 않은 주들로 이루어져있었 다. 그 당시 오늘의 미국 텍사스

침략과 령토팽창에 환장이 된 미국은 그 비옥한 땅을 전쟁을 통하여 강탈하였다.

났다. 그때부터 미국은 텍사스지 역을 넘겨다보았다.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면 미국은 텍사스를 비

시하고 오래전부터 살고있던 메 히꼬인들을 억압하였다.

공화국을 세웠다.

미국은 야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미국은 1만 4 0 0 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항거 해나서는 메히꼬인들을 닥치는 대로 쏘아죽이고 찔러죽이면서 야만적인 살륙전을 벌렸다. 미군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

시체가 쌓였다. 피비린내나는 대살륙전끝에

미국은 이 전쟁에서 5만명의 메히꼬인들을 살해하였다. 1848년 2월에 미국은 메

쥐였다. 미국에 대한 메히꼬의 적대감 은 그때에 생겨났으며 오늘까지 도 지속되고있다. 하기에 3년전

5만명의 메히꼬인 살해, 이 있다.